

정부소유 은행과 거래 기업 규모의 관계

이상욱*

¹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owned Banks and Firm Size

Sang-Wook Lee^{1*}

¹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미시 수준의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소유 은행과 거래 기업의 규모에 대해 다양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과 정부소유 은행 관계는 정부소유은행과의 최대대출관계 여부, 정부소유은행의 대출비중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정부소유 은행관계가 기업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시차변수, 도구변수를 이용한 이단계 최소자승 모형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통제변수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소유 은행과 주거래 관계에 있거나 정부소유 은행으로부터 많은 대출을 의존할수록 거래기업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소유 은행과 주된 거래관계에 있거나 정부소유 은행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을 의존하는 기업들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정부소유 은행과 관계가 긴밀할수록 기업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은행의 정부소유 여부 등 은행 소유 지배구조, 은행과 기업의 관계 등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은행의 민영화 진행 과정에서 정부소유 은행의 긍정적 기능을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Government-ownership of banks on the firm size using South Korean data. The impact of Government ownership of banks as both the largest lender of government banks and the bank loan dependency of firms on government-ownership bank were measured. Empirical models considering endogenous problems and various effects of firm size were developed. All results in this paper showed that government-ownership of the main banks might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smaller firms. In addition, the bank loan dependency of firms on government-ownership banks might have effects on the firm size. A higher loan dependency of firms on government-owned banks resulted in smaller firms. This study used micro firm level data to analyze, from several perspectives,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owned banks and firm size. The existing studies go as far as inferring the effects of government-owned banks showing theoretical evidence, performing surveys, or using international comparison data.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studies in that it analyzed in a direct manner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owned banks on both the firm size.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into the privatization of government-owned banks.

Key Words : Firm Bank Relationship, Government Bank, Firm Size

1. 서론

최근 한국에서는 우량 중소기업 양성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주된 화두이다. 한국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경제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

체적 수단으로 우량 중소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량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부문 특히 기업과 주된 거래관계에 있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들은 직접 금융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은행 등 간접금융에 높은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 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Corresponding Author : Sang-Wook Lee(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el: +82-2-970-6439 email: leesw@seoultech.ac.kr

Received May 13, 2014

Revised (1st July 10, 2014, 2nd July 23, 2014)

Accepted August 7, 2014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비상장 기업으로 직접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며, 상장인 경우에도 취약한 지명도 등으로 직접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 기능 개선을 위해 코넥스 시장을 별도로 개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 조선일보(2013. 9. 25일자)에 의하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넥스 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들에게 은행은 중요한 외부자금 공급원이다. 또한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들은 여러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기보다는 주된 거래 관계에 있는 은행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들에게 주거래관계에 있는 은행의 성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거래 관계에 있는 은행들은 기업과의 반복적인 거래관계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정보 생산 및 축적이 가능하다. 주거래 관계에 있는 은행들은 거래 기업에 대해 생산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거래 기업의 경영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래 관계의 은행들은 거래 기업과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며 거래은행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거래 관계에 있는 은행들의 선호도에 따라 거래 기업들의 유형이 결정될 수 있다. 주거래 은행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기피할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은 기업규모가 큰 은행과 주거래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주거래은행이 중소기업과 거래를 기피하지 않다면 주거래은행은 규모가 작은 기업들과 강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소유 은행과 주거래 관계 여부에 따라 기업규모에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살펴본다. 또한 정부소유 은행의 대출 비중에 따라 기업규모에 차이가 존재하는 지 살펴본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은행 산업에서 정부소유 은행이 중소기업 등의 대출에 기여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기존 정부소유 은행, 은행 기업관계 분야에 새로운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최근의 중소기업 육성 관점에서 정부소유 은행의 기능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한국 은행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은행의 민영화 과정속에서 정부은행의 기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에서는 정부소유 은행에 대한 기존연구, 정부소유 은행의 분류 등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실증분석 방법론과 결과를 소개하며,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정리한다.

2. 기존연구 및 정부소유은행 분류

2.1 기존 연구

정부소유 은행은 경제 개발의 도관(導管)으로서 기업의 자금 공급 기능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 반면, 정부소유 은행은 정치자금의 공급 기능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La porta et al.[2]는 정부의 은행소유에 대해서는 개발적 관점의 긍정적 평가와 정치적 관점의 부정적 평가가 상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개발적 관점에서 정부 소유 은행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의 도관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관점에서 정부소유 은행은 실질적으로 정치 자금의 도관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정부소유 은행은 거래 기업의 경영 투명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erger et al.[3]은 인도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를 통해 정부소유 은행과 주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경영 투명성이 낮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소유 은행은 민간 은행과 비교해 중소기업과 비효율적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Xiao and Zhao [4]도 정부소유 은행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의 경영혁신이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들은 국가별 비교를 통해 기업의 경영혁신은 정부의 은행 소유 비중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소유 은행은 거시 경제 및 기업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소개되고 있다. Micco and Panizza [5]는 정부소유 은행은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며 경제의 안정성에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Sapienza [6]도 정부소유 은행은 기업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2.2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본 연구는 기존의 정부소유 은행의 연구, 은행 기업관계의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추가적 기여가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정부소유 은행과 기업의 관계 자료를

이용해 정부소유 은행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 은행과 기업의 관계 연구에서도 본 연구는 정부소유은행과 기업의 관계가 강할수록 기업의 규모가 작다는 구체적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소유은행과 기업의 규모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결과에 대한 추가적 공헌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최근의 자료로, 비은행 중심 국가를 대상으로, OECD 소속의 국가를 대상으로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존재하는 학문적 격차(literature gap)를 줄였다는 점에서도 기여도가 있다.

2.3 정부소유 은행 분류

본 연구는 기업에 여신을 제공하는 은행들 가운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들 또는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을 정부소유 은행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금융지주 소속 은행들은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있다. 특별법에 설립되거나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은 정부에 의해 직간접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소유은행은 금융위기를 전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 금융위기 이후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소유가 아닌 은행들은 그 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정부소유은행은 축협만 농협으로 합병되었을 뿐 대부분 존속되고 있다. 따라서 은행 개수로는 정부소유 은행의 비중이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13년말 현재 외국계 지점을 제외한 국내의 은행은 총 18개이다. 이중 정부소유 은행은 8개이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은 5개로 산업, 수출입, 기업, 농협, 수협이다.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정부소유 은행은 3개로 우리금융 지주 소속 우리, 경남, 광주 은행이다. 정부가 소유하지 않은 은행으로는 국민, 하나, 외환, 대구, 부산, 신한, 제주, 전북, 제일, 한국시티 등 총 10개 은행이다. 따라서 정부소유 은행은 총 18개 은행 가운데 8개 은행으로 은행 개수 기준으로는 44.4%에 달한다.

3. 실증분석

3.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정부소유 은행과의 관계가 기업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은 설명변수의 종류에 따라 크게 모형 I, 모형 II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정부소유 은행 관계를 의미하는 변수로 정부소유 은행과의 주거래 관계 여부(Gov_Main), 정부소유 은행의 대출 비중(Gov_Loan)을 설정하였다. 모형 I은 정부소유 은행과의 주된 관계 여부(Gov_Main)를 정부소유은행 관계를 의미하는 설명변수로 이용하였으며, 모형 II는 정부소유 은행의 대출 비중(Gov_Loan)을 정부소유은행 관계를 의미하는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설명변수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먼저 일반적인 설명변수를 설정한 모형 A를 적용하였다. 다음 모형에 존재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 설명변수를 사용한 Lag 모형(모형 B),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2단계 최소자승을 적용한 모형 C을 각각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형 I-A, I-B, I-C와 모형 II-A, II-B, II-C로 세분화하여 총 6개의 모형을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6가지 모형은 다음 Table 1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Research Model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Main Bank Relationship with Government-owned Bank (Model I)	Government-owned Bank's loan ratio (Model II)
Basic (Model A)	Model I-A	Model II-A
Lag Model(Model B)	Model I-B	Model II-B
Two-Stage Least Square(Model C)	Model I-C	Model II-C

연구모형의 변수들은 다음 Table 2와 같이 정리된다. 먼저 종속변수로 기업규모(Size)는 총자산의 로그 값을 이용하였다. 설명변수로서 정부소유 은행과의 주된 관계 여부(Gov_Main)는 기업이 가장 많은 대출을 받고 있는 은행이 정부소유 은행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이다. 정부소유 은행의 대출 비중(Gov_Loan)은 기업의 은행대출에서 정부소유 은행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하였다. 즉 기업이 정부소유 은행에 대한 대출의 존도를 의미한다. 다음 모형 A의 변수에 시차를 적용한 모형 B에서는 전년도 정부소유 은행과의 주된 관계 여부(Gov_Main_Last), 전년도 정부소유 은행의 대출 비중(Gov_Loan_Last)을 각각 설정하였다. 2단계 최소자승을

적용한 모형 C에서는 모형 A의 설명변수를 그대로 이용하되 도구변수로서 주된 관계 은행의 경영성과(Bank_Roa)를 이용하였다. 주된 관계 은행의 경영성과는 최다 대출 은행의 총자산대비 순이익으로 산정하였다.

본고는 정부소유 은행과 관계가 강한 기업일수록 기업규모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소유 은행과 주된 거래관계에 있거나, 정부소유 은행으로부터 보다 많은 대출을 의존할수록 기업규모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내생성 문제를 완화한 연구모형들(설명변수에 시차를 적용하거나 2단계 최소자승 모형을 적용)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모든 모형에 공통적인 통제변수를 설정하였다. 먼저 기업규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 경영성과, 기업 성장, 기업 재무건전성, 위험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변수를 감안하여 외국인지분율 변수를 추가하였으며, 은행대출 관계에서 기업의 담보능력 대용변수로서 유형자산 비율을, 기업 내부자본조달 능력 변수로서 기업 내부자본 조달의 불안정성을 통제변수로 추가 설정하였다. 또한 소속 산업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산업더미 변수(Ins)를 설정하였다. 기업 경영성과는 기업의 총자산대비 순이익(Roa)을 이용하였으며, 기업의 성장은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Growth),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총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Capital), 기업의 위험은 기업의 매출대비 이자비용(Risk)을 각각 이용하였다. 한편 외국인지분율(Foreign)은 외국인의 보유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유형자산 비율(Tan)은 총자산에서 기업의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업의 내부자본 조달의 불안정성(Vol)은 기업의 직전 5개년간 총매출대비 영업이익의 표준편차를 각각 이용하였다. 산업더미 변수는 기업이 속하는 산업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를 설정하였다.

기업 경영성과가 양호할수록, 보다 많은 부채를 사용할수록, 기업의 성장성이 낮을수록 기업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총자산대비 수익률(Roa)을 가진 기업일수록 기업규모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많은 부채는 기업의 낮은 자기자본비율(Capital)을 의미하며, 기업의 낮은 성장성은 기업의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Growth)의 저조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의 높은 이자비용은 기업의 높은 위험(Risk)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제변수인 기업 경영성과로 총자산대비 수익률(Roa)는 양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의

미하는 자기자본비율(Capital), 성장성을 의미하는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Growth), 위험(Risk)을 의미하는 기업의 매출대비 이자비용은 음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업지배구조 변수로서 외국인 지분율(Foreign)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유형자산 비중(Tan)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좋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내부자본 조달의 불안정성(Vol) 측면에서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기업 내부자본 조달의 불안정성(Vol)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2] Definition of Variables

Variable		Definition	Expected Sign
Dependent Variable	Firm Size(Size)	Logarithm of main bank's book value of total assets	
	Main Bank Relationship with Government-owned Bank (Gov_Main)	A dummy variable equals 1 if largest bank is government owned bank, 0 otherwise.	Negative (-)
Independent Variable	Government Bank's loan ratio (Gov_Loan)	Government bank loan divided by total bank loan	Negative (-)
	Preceding Year's Main Bank Relationship with Government-owned Bank (Gov_Main_Last)	A dummy variable equals 1 if largest bank is government owned bank in preceding year, 0 otherwise.	Negative (-)
	Preceding Year's Government Bank's loan ratio (Gov_Loan_Last)	Government bank loan divided by total bank loan in Preceding Year	Negative (-)
	Return on Assets (ROA)	Net Income/Total Assets	
Control Variable	Equity Ratio(Capital)	Equity/Total Assets	
	Sale Growth (Growth)	Change of Sale/Sale of Preceding year	
	Risk	Interest Expense/Sale	
	Foreign	Foreigner's ownership divided by total ownership	
	Tan	tangible asset/total asset	
	Vol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operating income(scaled by sale) during the previous 5 years	
	Industry Dummy(Ins)	A dummy variable equals 1 if it belongs to the industry, 0 otherwise.	
Instrument Variable	Main Bank's ROA (Bank_Roa)	Net Income of Main Bank/ Total Assets of Main Bank	

3.3 실증분석 결과

정부소유 은행과 주된 관계 여부와 기업의 규모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3의 (Panel A)와 같다. 일반 회귀모형, 설명변수에 시차를 적용한 모형, 2단계 회귀모형을 각각 적용하였다. 정부소유 은행이 주거래 관계 여부는 정부소유 은행이 기업의 최대대출은행 여부로 정의하였다.

[Table 3] Result of Analysis
(Panel A)

	Basic Model (Model I-A)		Lag Mdoel (Model I-B)		Two-Stage Least Square Mdoel (Mdel I-C)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i>Gov_Main</i>	-0.139*	(0.040)			-1.735***	(0.002)
<i>Gov_Main_Last</i>			-0.189***	(0.007)		
<i>ROA</i>	1.007***	(0.000)	0.985***	(0.000)	0.910***	(0.000)
<i>Capital</i>	-1.230***	(0.000)	-1.111***	(0.000)	-1.219***	(0.000)
<i>Growth</i>	-0.102*	(0.053)	-0.093	(0.109)	-0.123**	(0.044)
<i>Risk</i>	-2.012**	(0.014)	-1.353	(0.137)	-1.089	(0.288)
<i>Foreign</i>	1.279	(0.231)	1.187	(0.268)	1.433	(0.238)
<i>Tan</i>	1.319***	(0.000)	1.181***	(0.000)	1.057***	(0.000)
<i>Vol</i>	0.002	(0.488)	-0.219**	(0.020)	0.001*	(0.976)
Ins	Included					
Constant	Included					
Obs	1,428		1,317		1,428	
Adj-R ²	0.252		0.251		0.251	
	Basic Model (Model I-B-①)		Lag Mdoel (Mdoel I-B-②)		Two-Stage Least Square Mdoel (Mdoel I-B-③)	
	Coef.	P-value	Coef.	P-value	Coef.	P-value
<i>Gov_Loan</i>	-0.220*	(0.041)			-5.604**	(0.035)
<i>Gov_Loan_Last</i>			-0.235***	(0.009)		
<i>ROA</i>	1.008***	(0.000)	0.983***	(0.000)	0.832***	(0.000)
<i>Capital</i>	-1.235***	(0.000)	-1.112***	(0.000)	-1.333***	(0.000)
<i>Growth</i>	-0.095*	(0.071)	-0.089	(0.123)	-0.032	(0.757)
<i>Risk</i>	-2.011**	(0.015)	-1.402	(0.123)	0.110	(0.948)
<i>Foreign</i>	1.230	(0.227)	1.198	(0.264)	2.001	(0.239)
<i>Tan</i>	1.318***	(0.000)	1.173***	(0.000)	0.747*	(0.076)
<i>Vol</i>	0.002	(0.488)	-0.221**	(0.019)	-0.003	(0.622)
Ins	Included					
Constant	Included					
Obs	1,428		1,317		1,428	
Adj-R ²	0.252		0.251		0.251	

Note: ***, **, * denote 1%, 5%, 10% levels of significance, respectively.

회귀 모형에서 정부소유 은행 주거래 관계 여부 (*Gov_Main*)의 추정계수는 유의한 수준에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역의 인과관계를 고려해서 설정한 Lag 모형 또는 2단계 회귀모형에서도 전년도 정부소유

은행 주거래 관계 여부(*Gov_Main_Last*) 또는 정부소유 은행 주거래 관계 여부(*Gov_Main*)의 추정계수가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음의 부호를 보였다.

정부소유 은행과 주거래 관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기업규모가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소유 은행은 정부소유가 아닌 은행과 비교해 규모가 작은 기업과의 주된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의 은행대출에서 정부소유 은행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기업 규모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3의 (패널 B)와 같다. 일반 회귀모형, 설명변수에 시차를 적용한 모형, 2단계 회귀모형을 각각 적용하였으며, 정부소유 은행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의 은행대출에서 정부소유 은행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하였다.

회귀 모형에서 정부소유 은행의 대출비중(*Gov_Loan*)의 추정계수는 유의한 수준에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역의 인과관계를 고려해서 설정한 Lag 모형 또는 2단계 회귀모형에서도 전년도 정부소유 은행의 대출비중 (*Gov_Loan_Last*) 또는 정부소유 은행의 대출비중(*Gov_Loan*)의 추정계수가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음의 부호를 보였다. 정부소유 은행은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해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을 공급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소유 은행은 중소기업으로의 대출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소유 은행과 주거래 관계에 있거나 정부소유 은행으로부터 많은 대출을 의존할 수록 거래기업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회귀분석 모형 뿐 아니라 모형에 존재하는 내생성 문제를 완화한 다른 모형 등에서도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정부소유은행은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거래하기 좋은 은행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정부소유 은행과 주된 거래관계에 있거나 정부소유 은행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을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정부소유 은행이 소규모 등에 상대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은행의 민영화, 대형화,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 정부소유 은행의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정부소유 은행

의 민영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은행 등 금융시스템을 활용한 우량 중소기업 양성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량 중소기업 양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본 연구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존 은행기업 관계 또는 은행 소유지배 연구 등에 대한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미시 수준의 기업 자료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 방법과 변수 이용에도 불구하고 연구 모형의 설명력이 높지 않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 상 욱(SangWook Lee)

[정회원]



- 2006년 8월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 1993년 1월 ~ 2008년 2월 : 한국은행 조사역
- 2008년 3월 ~ 현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 및 부교수

<관심분야>

회계, 은행과 기업관계, 은행 경영

References

- [1] Chosun Ilbo, "Konex, what problem?". September 25, 2013.
- [2] La porta, R., F. Lopez-de-silanes, and A. Shleifer. Government Ownership of Banks. *Journal of Finance*. Vol. 57, pp. 265-301. 2002.
DOI: <http://dx.doi.org/10.1111/1540-6261.00422>
- [3] Berger A. N., L. F. Klapper, M. S.Martinez Peria, and Zaidi, R., "Bank Ownership Type and Banking Relationship,"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Vol. 17, pp. 37-62. 2008.
DOI: <http://dx.doi.org/10.1016/j.jfi.2006.11.001>
- [4] Xiao, S. and Zhao, S. Financial Development, Government Ownership of Banks and Firm Innov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 Finance*. Vol. 31, pp. 880-906. 2012.
DOI: <http://dx.doi.org/10.1016/j.jimonfin.2012.01.006>
- [5] Micco, A. and U. Panizza. Bank Ownership and lending behavior. *Economic letters*. Vol. 93, 248-254. 2006.
DOI: <http://dx.doi.org/10.1016/j.econlet.2006.05.009>
- [6] Sapienza, P. The Effects of Government Ownership on Bank Lending.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72, pp. 357-385. 2004.
DOI: <http://dx.doi.org/10.1016/j.jfineco.2002.10.002>